



대한민국 구석구석

영화가 되다

‘영화 속 그곳’은 작품의 공간이다. ‘그곳’은 내가 갔을 때 특별해진다.
‘추억의 장소’가 된다. 예술과 그리움의 변주가 시작된다.



한 번 도
함 락 되
않 았 던

남한산성

한 해 300만 명 이상이 남한산성을 찾는 것은 성을 폭 감싸고 있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또 400년 전 짓밟힌 자존이 아직도 아프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을 찾는 안식과 순례의 발길은 이어진다.

글 현경숙 · 사진 조보희 기자

한국판 '버킷리스트'

유나이티드 컬러즈 오브 코리아(United Colors of Korea)

미국 아카데미 상을 2년 연속 받은 한국 영화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감염병이 터지기 전 영화 제작은 한 해 100편을 넘었다. 전국 곳곳은 영화 촬영 중이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영화가 된다. 내가 이미 가본 장소라면 '영화 속 그곳'은 내 추억의 빛깔을 띤다. 거꾸로 영화의 서정을 좇아 내가 찾는 '그 곳'은 영화의 빛에 물든다. 우리가 사는 곳이 예술, 추억과 뒤섞일 때 삶은 풍요롭다.

2007년 제작돼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버킷리스트'(The Bucket List)의 제목은 한국에서도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은 단순했다. 세계 유명 관광지를 보여준 데 있었다. 평생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앞서 환상적이라만큼 아름다운 장소를 펼쳐 보인 것 자체에 감동이 있었다.

2016년 강우석 감독이 만들었던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차승원 분)가 지도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조선 팔도를 누비는 내용이다. 황매산을 뒤덮은 붉은 철쭉 무리, 파도가 부서지는 새파란 제주 해안의 순결한 햇빛, 아득하게 이어지고 사라지는 산들의 줄기... 극장 화면을 가득 채운 산하의 아름다움이 선명했다. 사계절 색깔이 다른 한반도의 아기자기한 멋이야말로 'K-뷰티'(K-Beauty), 한국의 아름다움이다. K-뷰티들이 뭉쳐져 만들어내는 '유나이티드 컬러즈 오브 코리아'(United Colors of Korea)는 한국판 버킷리스트가 되리라.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주목적인 영화는 적지 않다. 주제나 스토리는 장소를 부각하기 위한 핑계인 경우도 있다. 2010년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Eat Pray Love)도 비슷하다. 새로울 것 없는 이 주제를 펼치기 위한 무대는 이탈리아, 인도, 발리였다. 세련되고 화려한 액션 영화가 주는 흥분의 절반은 홍콩, 싱가포르, 파리, 뉴욕, 리우데자네이루 등 촬영지의 박력 넘치는 스카이라인에서 온다. 그만큼 장소는 그 자체로 마음을 움직인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사람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두 발로 걷는 동물은 이제 여행을 새로운 본능으로 획득한 듯싶다.



1 서울 강남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서쪽 성곽길 2, 3 영화 '남한산성' 스틸컷



[CJ엔터테인먼트 제공]



[CJ엔터테인먼트 제공]



1 남한산성 종각의 천흥사 동종 2 서문 출입구. 인조는 청에 항복할 때 주 출입문인 남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작은 서문을 통해 나갔다.
3 행궁 앞 정원에 있는 석양 4 성곽길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 강남 시가지 5 서문과 성곽

망월봉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다

‘봄비에 씻긴 성벽이 물오르는 숲 사이로 뻗어 계곡을 건너고 능선 위로 굽이쳤다’. 영화 ‘남한산성’의 원작 소설 저자인 김훈이 서문에 쓴 글이다. 남한산성을 버킷리스트 1호로 올린 것은 뚫고 오르고 꺾는 성벽의 역동성을 가까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치열한 영토 다툼을 벌였던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산성이 많았다. 오랜 세월을 견딘 석성의 단단함과 의연함은 사람을 매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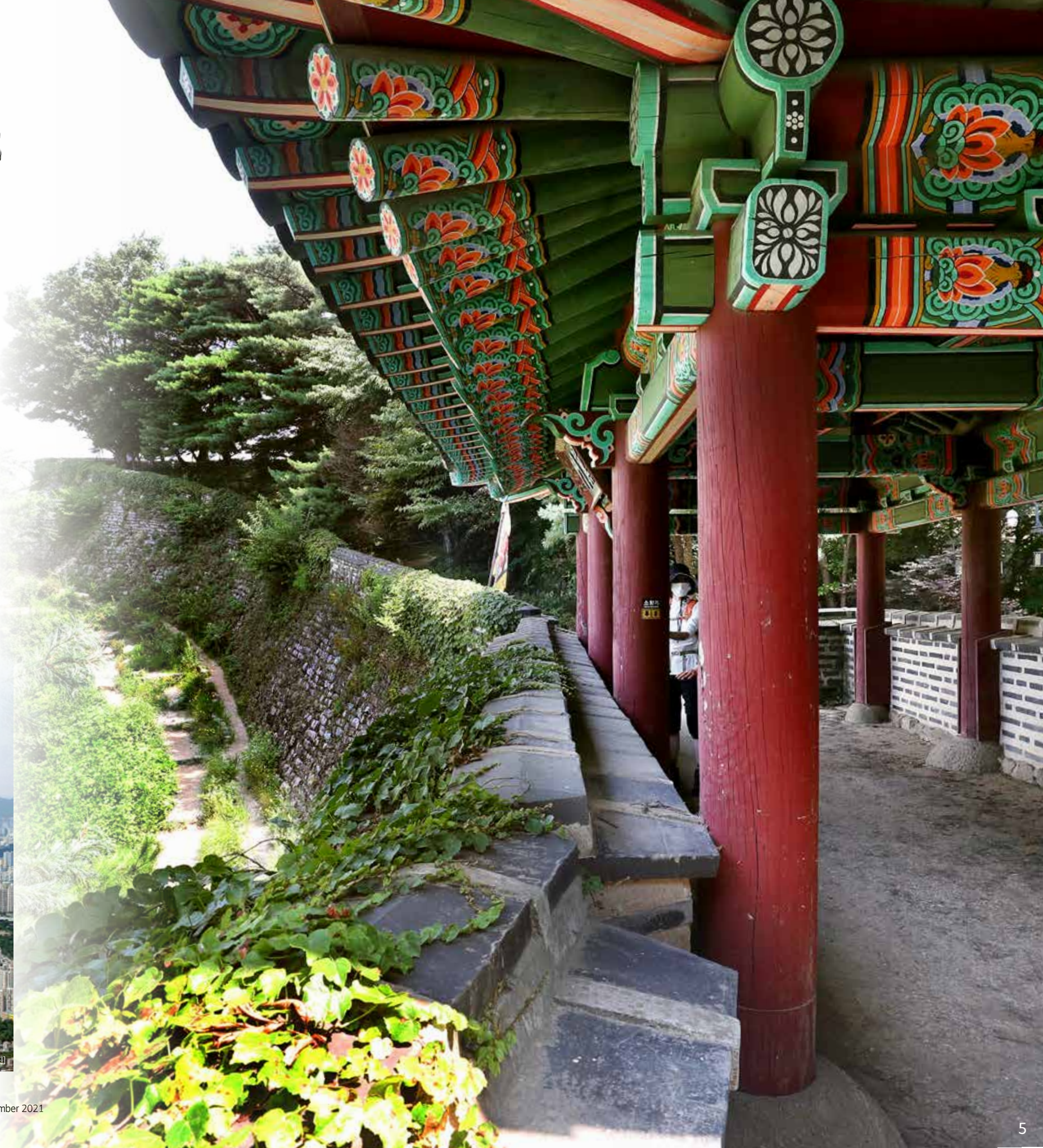
이곳을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남한산성의 현재성이다. 영화 남한산성은 2017년 개봉했다. 그 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는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보복을 몰고 왔고 한국은 큰 타격을 입었다. 기존 강대국 명나라와 신흥 강국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했던 과거 조선의 처지는 세계 유일 강대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사이에 낀 현재 한국의 곤궁함과 다르지 않다. 외교 노선을 둘러싸고 안에서 벌이는 공허한 말싸움이나 외교의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안쓰러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

소설 ‘남한산성’은 영화 개봉 전에만도 100쇄를 찍었다. 소설이 불러낸 조선의 외교와 국방 실패, 백성이 겪은 참상은 반향이 컸다. 영화는 무겁고 어둡다. 영화에 든 관객은 공식 기록으로 384만 명이다. 몇 년 동안 공들여 찍은 제작 비용을 제할 수 있었을까 싶다. 유행하지 않은 역사물이 대박을 치리라고 황동혁 감독은 예상하지



4

[연합뉴스 자료사진]





1



2



3

1 수어장대. 남한산성에는 군대 지휘소인 장대가 5개 세워졌으나 지금은 수어장대만 남아 있다.
2 숲으로 이어진 남한산성 둘레길 3 수어장대 마루

못했을 것이다. 원작 소설의 줄거리는 처절하다. 비극을 날날이 각인시키려는 듯 문장들은 강렬하다. 감독은 그 절박함에 포획되지 않았을까. 흥행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려운 주제를 고려할 때 결코 관객이 적었다고 할 수도 없다.

대국과 대국이 부딪히는 경계에 위치한 한반도에 외교는 숙명적 난제다. 남한산성을 향하던 날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의 답이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웅크렸다. 성의 중심인 '남한산성 로터리'에 도착하니 망월봉이 뻗어 보였다. 로터리 바로 위쪽에 임금의 거처였던 행궁이 있었다.

1636년 12월 2일 청나라 태종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 침략을 시작했다. 병자호란이다. 청은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넜고 조선은 13일에야 청의 침입 사실을 알았다. 14일 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16일 청은 성을 포위했다. 명과 단교하고 자신들과 군신

- 1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서 있는 삼전도비
- 2 남한산성 남문인 지화문
- 3 성곽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며 쳐들어온 청의 눈앞에서 인조는 1637년 1월 1일 행궁 뜰에 나와 명나라 황제를 향해 새해 인사를 올리는 춤을 춘다. 나라가 거꾸로 매달린 위난 속에서 인조가 춘 춤은 조선 조정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병자호란 9년 전인 1627년 청의 전신인 후금은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와 대신들은 강화도로 피란했다. 병자호란 전조였던 정묘호란이다. 조선은 두 차례의 국난을 겪으면서도 명의 몰락과 청의 부상이라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다. 청 태종의 침략을 당하고서도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고, 오랑캐인 여진족이 세운 청과 외교를 맺을 수 없다는 명분론에 빠져 있었다. 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침략에 대비하지는 않았다. 청은 후에 역사상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제국으로 성장한다.

청 태종이 인조의 춤을 내려다보던 지점이 망월봉이다. 청이 신무기 홍이포를 발사해 행궁을 유린했던 곳도 망월봉이다. 망월봉과 행궁 사이 거리는 족히 몇 km는 될 것 같았다. 파란 하늘을 이고 솟은 망월봉은 행궁을 정확히 조준했던 청의 무기 기술을 증언하는 듯했다. 전술 고지인 망월봉은 원래 남한산성 바깥에 있었다. 지금은 망월봉이 성 내부에 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이 망월봉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곳을 둘러싸는 외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성안으로 들어온 망월봉이 반갑다.

인조는 47일 동안 성안에서 버티다 1637년 1월 30일 송파강 삼전나루로 나가 청 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하며 항복한다. 조선 조정이 청에 항복했지만, 청의 군대가 성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산성은 1624년 인조 2년에 축조된 뒤 한 번도 적에게 함락되지 않았다. 남한산성 원성의 둘레는 약 8km였다. 청의 침략 후 웅성과 외성을 보강한 뒤 둘레는 약 12km로 확장됐다.

행궁은 임금이 서울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 거처하는 곳이다. 남한산성 행궁은 병자호란 후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이 다녀갔다. 우리나라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두고 있었다. 유사시 임시 수도였다.

양지바른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해발 480m가 넘는 험준한 자연 지형을 따라 지어졌다. 통일신라가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해 지었던 토성인 주장성을 기초로 건축됐다. '주장(晝長)이란 낮이 길다는 뜻이다. 행궁 안에는 광주부 유수의 집무실이었던 일장각이라는 건물이 있다. '일장'(日長)이란 해가 길다는 의미다. 남한산성은 높은 산에 둘러싸였으나 일조량이 많다. 산성 내 분지의 해발 고도 역시 150m 가량으로 높아 산 정상과 분지의 고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산성길을 따라 걸으면 높은 산세는 수려하고 걷는 발길은 편
안하다. 한 바퀴 도는 데 1~2시간이면 될 듯하다. 서문에 서
면 한강과 남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3위 경제 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외
교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그런데 친미, 친중, 친일, 반미, 반
중, 반일 등 외교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어지럽다. 남한
산성에 근무하는 김규선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지론은
명료했다. 그는 “편 가르기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편은
별도의 바구니에 담아놓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리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쪽에 있을 것이다.
김훈의 산문 ‘찾잔 속의 낙원’에 ‘무릇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사람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하동
쌍계사 마당에 있는 진감국사대공탑비의 비문이다. 글 읽는
후인들이 그 문장을 두려워한다고 김훈은 덧붙였다.

남한산성 순례는 자연과 삶의 지속성을 떠올린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국가가 대응하지 못할 때 짓밟히는 인간의 존엄
을 돌아보게 한다. 영화는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성안으로
돌아와 봄 농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난다.



1,2 남한산성 행궁 3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 병풍



대나무 숲을
거닐며
속세를 잊다

아홉산숲

하늘을 향해 쪽쪽 뻗은 대나무 숲 사이로 청량한
초록 바람이 흐른다. 사각사각 댓잎이 스치는
소리가 상쾌하다. 부산 기장군의 아홉산숲은
사계절 언제 찾아도 싱그러움 가득한
대나무숲으로 유명하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의 맹종죽 숲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됐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영화의 도시’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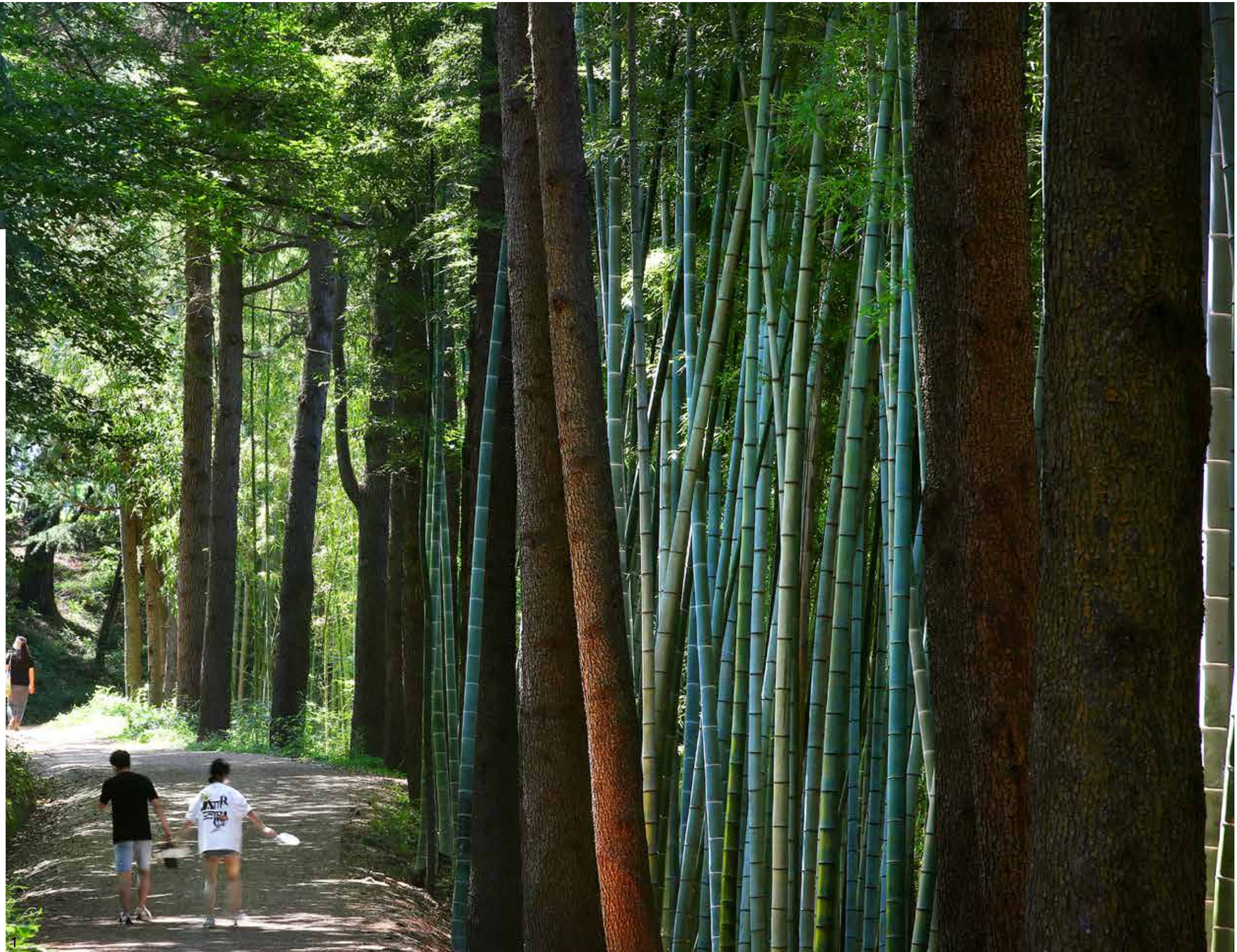
부산은 ‘영화의 도시’다. 아시아 최고의 국
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이곳
에서 열린다.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 덕
분에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받는다. 피란민
의 애환이 서린 중앙동 40계단과 흰여울
문화마을,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전국 최대의 헌책방 골목인 ‘보
수동책방골목’… 부산 곳곳에서 영화는 물
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드라마와 CF가
만들어졌다. 이번에 찾은 촬영 명소는 부
산 동북쪽에 있는 기장군의 아홉산숲이다.
‘군도:민란의 시대’(2014), ‘협녀, 칼의 기억’
(2015), ‘대호’(2015), ‘더 킹:영원의 군주’
(2020)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
서 촬영됐다.



9대에 걸쳐 가꾸고 지켜온 숲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아홉산(해발 361m)은 서울 남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홉 개의 골짜기를 품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아홉산이 유명해진 것은 이 산자락에 깃든 아홉산숲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0년 전 이곳에 정착한 남평 문씨 가문이 9대에 걸쳐 가꿔온 이 숲 덕분에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아홉산숲의 역사는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진왜란 이후 철마면 미동마을에 정착한 남평 문씨 일가가 조림과 육림을 통해 뒷산의 숲 52만㎡를 가꾸고 지킨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400년간 묵묵히 숲을 가꿔온 한 가문의 고집과 열정은 금강송과 대나무, 편백, 삼나무 등 수백 종의 식물이 어우러진 명품 숲을 만들어냈다. 사실 아홉산숲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의 숲’이었다. 나무를 가꾸고 지키는 것을 숙명으로 여겼던 문씨 가문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 숲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다. 52만㎡의 숲이 수백 년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외부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치원생을 위한 체험 학습장으로만 간간히 개방됐던 숲이 일반인에게까지 알려진 것은 스크린에 등장

1 개잎갈나무와 맹종죽이 마주 보며 늘어서 있는 ‘바람의 길’
2 산책로에서 휴식을 취하는 탐방객





하면서부터다. 영화 '군도'의 배경이 된 맹종죽 숲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반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많아졌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발길에 숲이 훼손되자 9대 종손인 문백섭 대표는 제대로 개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2015년부터 숲을 정식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숲을 따라 난 탐방로는 총 3.2km.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둘러보는 데에는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매표소를 지나 조금만 걸어가니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먼저 반긴다. 하늘을 뚫을듯한 기세로 솟아있는 금강송들이 낮게 뻗은 '누운 주목'들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이다. 영남지방에서 보기 힘든 이 금강송 군락지의 소나무들은 수령이 400년을 넘는다고 한다. 모두 기장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 송진을 채취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이곳 소나무들의 특징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느라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 종택이 집안의 못그릇을 다 내어주면서 나무는 끝까지 지켜냈다고 한다. 남평 문씨 가문의 나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간다.



1 아홉산숲 초입의 금강소나무 군락지. 수령 400년이 넘는 금강송이 '누운 주목'들과 어우러져 있다.
2 아홉산숲에서 만난 상사화
3 쪽쪽 뻗은 맹종죽 사이로 어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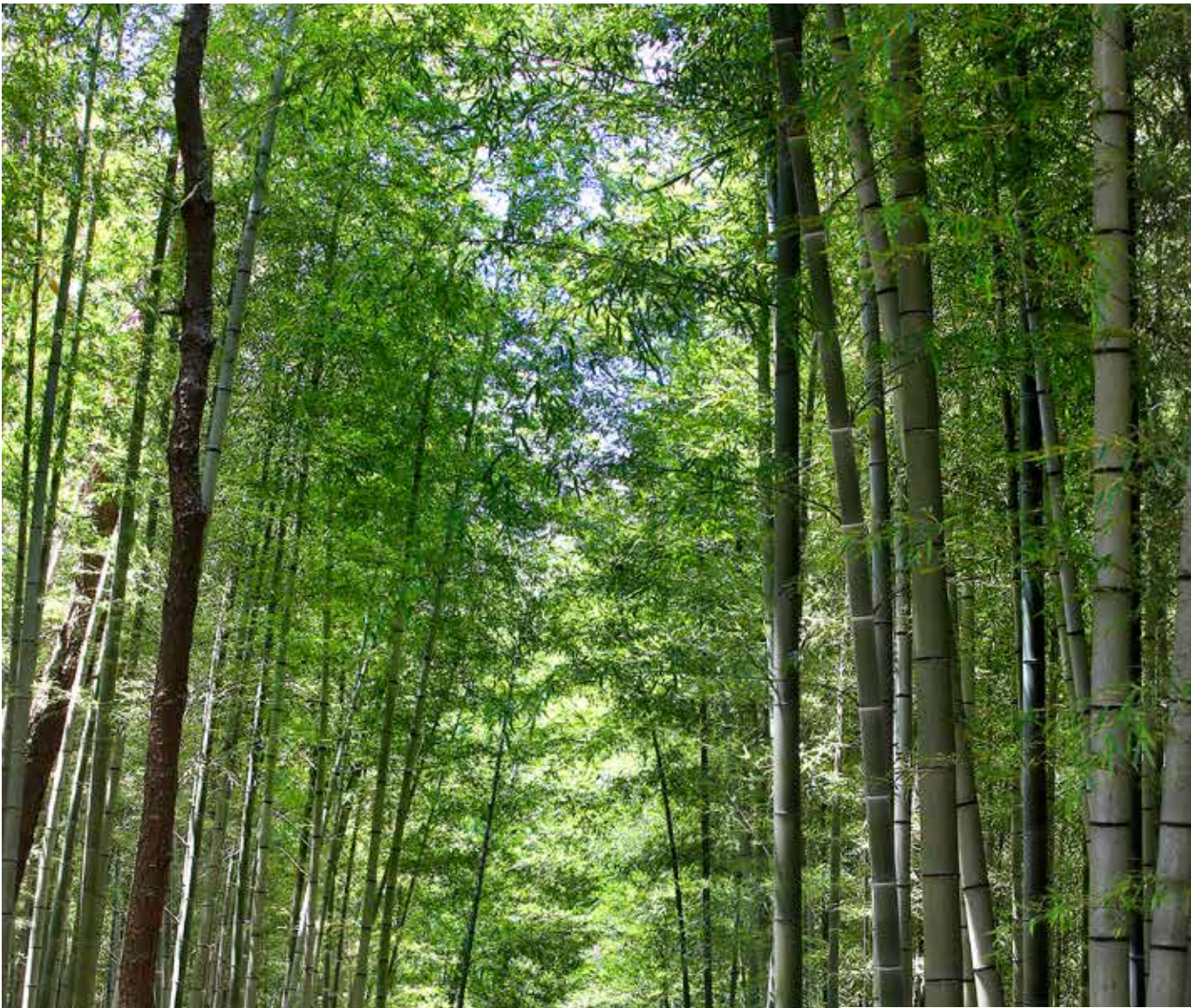
1 아홉산숲의 첫 번째 맹종죽숲. 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 촬영 당시 세운 두 개의 돌기둥은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 됐다.
2 아홉산숲에서 촬영한 영화 '협녀, 칼의 기억' 중 한 장면 3 '군도:민란의 시대' 중 한 장면

무협영화가 떠오르는 맹종죽 숲

금강송 군락지를 지나니 오른쪽에 아홉산숲을 상징하는 맹종죽 숲이 펼쳐진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이다. 영화 '군도'에서 하정우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무공을 익히던 장면도, 영화 '대호'에서 최민식이 호랑이를 추격하던 장면도 모두 이곳에서 찍었다. 숲에는 두 손으로 움켜쥐기 벅찰 정도로 굵은 대나무들이 뻗뻗하게 솟아 있다. 맹종죽은 키가 10~20m, 지름은 20cm 정도로 대나무 중 가장 굵다고 한다. 아홉산숲의 맹종죽 숲이 촬영장소로 각광받는 것은 인공 조형물이 거의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숲을 둘러싼 울타리조차 없어 탐방객들이 마음껏 대나무 사이를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뻗뻗하게 우거진 대숲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대숲 깊숙이 들어가니 온통 초록빛에 둘러싸여 마치 판 세상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다.

아홉산숲의 첫 번째 맹종죽 숲인 이곳은 약 200년 전 조성됐다고 한다. 맹종죽 숲을 배경으로 둥그렇게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터가 있어 '굿터 맹종죽'으로도 불린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터에 아홉산 산신령의 영험이 있다고 믿고 굿은일이 있을 때 치성을 드리거나 굿을 했다고 한다. 굿터에 솟아있는 두 개의 돌기둥은 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 촬영 당시 세운 것이다. 드라마 촬영이 끝난





1 만평대숲 사이로 난 오솔길
2 남평 문씨 일가가 살았던 '관미헌',
고사리조차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3 줄기가 거북 등딱지처럼 생긴 구갑죽
4 영화 '대호'를 촬영했던 서낭당



INFORMATION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480번지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 월요일 휴무
입장료 5천원 ☎ 051-721-9183

뒤에도 철거하지 않고 남겨놓은 덕분에 아홉산숲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 됐다.

굿터를 지나면 개잎갈나무와 맹종죽이 마주 보며 늘어선 '바람의 길'이다. 이 길을 지나면 영화 '대호'를 촬영한 서낭당이 나오고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왼쪽 길은 편백숲과 삼나무 조림지를 거쳐 두 번째 맹종죽 숲으로 향하는 길이고, 오른쪽 길은 곧바로 두 번째 맹종죽 숲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두 번째 맹종죽 숲은 만평대숲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서 가장 큰 맹종죽 숲으로 규모가 1만 평에 달한다. 해방 전후부터 옛 동래군청 주변의 식당을 돌며 남긴 음식을 차로 실어나르고 부산 시내를 지나는 분뇨차를 불러들여 숲을 가꿨다고 한다. 하늘을 향해 쪽쪽 뿜은 대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고 있으니 쉼~하는 소리가 들린다. 땀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청량하다. 초록빛 대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온갖 새소리에 바람 소리까지,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되는 기분이다.

맹종죽 숲을 한 바퀴 돌고 지름길을 따라 입구 쪽으로 내려오면 100년 된 배롱나무와 연못 너머로 '관미헌'이라는 이름의 전통 가옥이 있다. 관미헌은 '고사리조차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남평 문씨 일가의 철학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문씨 일가가 살았던 이 집은 현재 직원들의 숙소로 쓰이고 있다. 고택 주변에는 거북 등딱지처럼 생긴 대나무인 '구갑죽'이 눈길을 끈다. 1950년대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뿌리를 이식한 것이 작은 정원을 이룰 만큼 번졌다.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홉산 숲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대나무였다고 한다.



1, 2, 3 기장을 죽성리 두호마을 갯바위 위에 지어진 죽성 성당.
2009년 방영된 드라마 '드림'을 촬영했던 세트장이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죽성 성당

기장군에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한 곳도 많다. 대변항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를 따라가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다 보면 곳곳에서 영화 촬영지를 만날 수 있다. 기장 멸치와 기장 미역으로 유명한 대변항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된 곳이다. 주인공 4명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을 여기서 촬영했다.

대변항에서 해안도로를 달려 죽성리 두호마을에 다다르면 갯바위에 서 있는 서양식 건물 하나가 눈길을 끈다. 붉은색 첨탑과 지붕이 아름다운 이 건물은 성당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당은 아니다. 2009년 방영된 드라마 '드림'을 촬영했던 세트장이다. 기장군이 드라마 촬영을 위해 3억원을 들여 지었다고 한다. 푸른 바다와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붉은 지붕의 성당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다. 덕분에 드라마 방영이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사진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바다가 푸르게 빛나는 한낮의 풍경도 물론 아름답지만, 분홍빛 노을로 하늘이 물드는 해 질 녘 풍경은 묘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때쯤이면 성당 외벽 곳곳에 조명이 들어와 사진 찍기에도 좋다.

죽성리에서 기장군청 방향으로 나와 일광해수욕장으로 가면 다시 해안도로가 나온다. 굽어지는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영화 '복면달호'(2007)의 촬영지인 동백마을이다. 대변항 바로 옆 연화리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해안을 따라가며 이색적인 등대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출산율을 높여 보자는 기원을 담아 만든 젓병 등대, '마징가 Z'와 '태권V'를 형상화한 등대,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것을 기념해 세운 월드컵 등대, 물고기 등대, 갈매기 등대, 야구 등대 등 다채로운 모양의 등대가 관광객을 반긴다.





인정사정
볼 것 많은

태백

강원도 태백은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태백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찍는 이유는 간단하다. 볼 것과 즐길 것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알프스 떠올리는 몽토랑 목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요즘, 탁 트인 바깥 공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얼마 전 태백을 방문했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봤다. 그러다 최근 새롭게 올라온 여행지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태백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목장 하나가 최근 문을 열었다. 요즘 같은 시기 딱 맞아떨어지는 여행지가 아닌가. 무작정 차를 몰았다. 해발 800m의 가파른 산 중턱에 차를 세웠다. 첫눈에 스위스의 알프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원하게 펼쳐진 공간에 파란 하늘과 푸른 잔디, 그리고 드문드문 관람객이 보인다. 알프스와 다른 게 있다면 양떼가 아니라 산양 떼라는 것 정도다. 목장 이름은 '몽토랑'. '몽글몽글 구름 아래, 토실토실한 산양을 너랑 나랑 만나보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탁 트인 목장 이곳저곳으로 하얀색 염소들이 꼬물꼬물 물려다니는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서늘했고 공기는 상쾌했다.

티켓 판매소를 겸한 건물은 베이커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산양유로 만든 빵과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다. 아쉽게도 산양유는 맛보지 못했다. 하루에 산양유가 50~60ℓ 정도만 생산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매진된다고 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문을 여는데, 산양유를 사기 위해 9시부터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 사는 산양은 야생산양과 달리 산양유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이다. 뉴질랜드에서 50마리를 들여와 현재 100여 마리로 늘렸다.

이곳에선 47만여 평의 목초지에 100마리의 산양을 완전 방목으로 키운다. 몽토랑목장의 포부는 야심 차다. 한여름에 서늘하고 스위스를 닮아 목초지가 많다는 특성을 살려, 목장 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겠다고 한다. 탄광산업 사양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태백시를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보였다.





1



2

1 구와우마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여성들 2 구와우마을 전경

구와우마을 해바라기밭에서는 누구나 ‘뮤즈’

올해도 태백시 구와우마을 해바라기는 여지없이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구와우는 백두대간 고개인 해발 935m 삼수령 아래에 있는 구릉지다. 삼수령은 ‘삼수’(三水)라는 이름처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물길을 ‘삼해’(三海)로 가르는 지점이다. 이곳에 떨어진 빗방울이 북쪽으로 흐르면 서해,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 남쪽으로 흐르면 남해로 각각 간다. 북쪽의 해발 1천303m 천의봉에 올라 구릉지를 바라보면 ‘소 아홉 마리가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누워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구와우’(九臥牛)라고 불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구와우는 애초 고랭지 배추밭이었다. 그러나 황창렬 해바라기문화재단 대표가 ‘무채색의 고향 탄광촌을 노란 유채색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꿈을 실행에 옮기면서 해바라기 언덕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2005년부터 배추 대신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했다. 해바라기밭은 축구장 9개 면적보다 넓은 6만6천여㎡에 이른다. 그때부터 태백해바라기축제를 개최해 왔다. 푸른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가 연출하는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입소문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졌다. 특별히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매년 여름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축제장을 찾았다.

코로나19로 올해는 축제를 열지 않았고, 밭 일부에 다시 배추를 심었다. 그래도 관광객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왔다. 어쩌면 팬데믹 시대에 가장 알맞은 거리두기 여행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권에서 온 여성 3명은 차에서 한참 동안 단장을 하더니 해바라기밭으로 향했다. 한 여성은 머리에 화관까지 준비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뮤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내기 명소 통리탄탄파크·오로라파크

서늘한 태백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새내기 여행지가 최근 두 곳 문을 열었다. 통리에 세워진 통리탄탄파크와 오로라파크가 그곳이다. 탄탄파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 있는 옛 한보탄광 부지에 129억원을 들여 조성한 체험형 관광시설이다. 한보탄광이 1982년부터 석탄생산을 시작한 이곳은 석탄 사업 사양화로 2008년 문을 닫았다가 2016년 태양의 후예를 촬영하며 관광명소가 됐다. 태백시가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사업비 223억여원을 투입해 조성한 관광객 참여형 관광지다. 길이 363m와 613m의 폐갱도 2개소에서는 디지털 아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입장권을 받아드니 왼쪽 정면에 드라마에서 지진 장면을 촬영한 무너진 건물 더미가 보인다. 오른쪽은 촬영 당시에 활용됐던 탱크와 군용차량, 우르크 태백부대 막사, 군용트럭과 헬기 등도 보인다. 정면은 첫 번째 폐갱도다. 갱도 앞에서 입장권을 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바깥 기온은 30도를 넘었지만, 폐갱도 내부는 시원하기 그지없었다. 갱도 내부를 걸으면서 광부의 하루가 담긴 영상과 석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디지털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갱도에서 나오면 야외 산책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갱도를 만난다.



1 내부 조명이 아름다운 탄탄파크 갱도 내부 2, 3 태양의 후예 세트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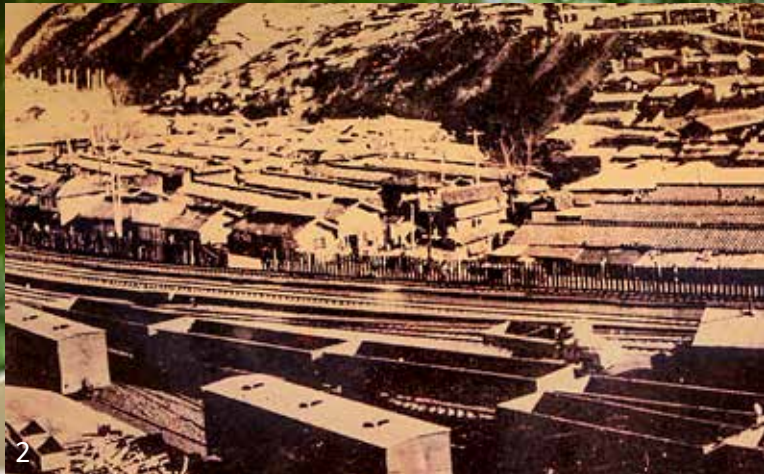
3

1, 2 저 멀리 추추파크가 보이는
오로라파크 전망 타워
3 오로라파크 전망 타워는 나선형
보도를 따라 걸어 내려갈 수 있다.



1

해발 680m 통리역 일대 철도 유휴지에 122억원을 들여 조성
한 오로라파크는 탄탄파크에서 2km 거리에 있다. 호주 북부
케언스의 쿠란다역을 비롯해 중국 탕구라, 스위스 클라이네
샤이데크, 미국 파이크스피크, 일본 노베야마 등 세계 5개국
의 고원 역사를 캐릭터 하우스로 재연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통리의 아름다운 산세와 사계를 조
망할 수 있는 높이 49.2m의 전망 타워다. '시골 한구석에 생뚱
맞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일단 엘리베이터
를 타고 올라가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타워가 서 있
는 장소가 삼척의 추추파크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한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두
고 나선형 보도가 바깥을 둘러싼 형태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라도 걸어 내려올 수 있다. 이 보도 가운데 일부
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돼 있어 아찔한 느낌도 든다. 더위라고
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5개국의 고원 역사 가운데 케
언스의 쿠란다역을 가본 필자로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역사가 조금 생뚱맞게 느껴져 아쉬웠다.



1 철암역 맞은편 심터에 설치된 경도 열차 2 산꼭대기까지 공동주택이 들어섰던 과거 철암역 주변
3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스틸컷

어려운 시절 힘이 되어준 철암

20년 전 제작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지스의 음악 '홀리데이'가 흐르는 가운데 벌어진 박중훈과 안성기의 빙속 결투 장면 말이다. 이 장면이 촬영된 곳은 태백 철암역이다. 철암역두(鐵岩驛頭) 선탄장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으로도 의미가 깊다.

선탄장은 탄을 고르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난 문화해설사 최순덕 씨는 여성 광부로 14년을 근무했다. 철암에는 300명의 여성 광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최씨를 비롯한 여성 광부들은 선탄장에서 탄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당시에는 남해 다랭이마을처럼 계단식 구조에 수많은 공동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고 한다. 보통 9가구 가 한 지붕을 공유하는 '한 지붕 아홉 가족'이었다고 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철원 출신인 최씨는 시집왔던 첫날을 잊지 못한다. 철원에서 청량리로 온 최씨는 밤 기차를 갈아타고 새벽에 철암에 도착했다. 산꼭대기까지 불빛이 있는 모습을 보고 변화한 도시로 생각했다고 한다. 모두 산꼭대기까지 들어선 공동주택의 불빛이었다. 1960~1970년대 12만 명까지 늘었던 태백 인구는 최근 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3 (주) 프로젝트에무제공



1 철암역 맞은편에 설치된 경도 모양의 쉼터
2 영화가 촬영된 철암역 철로
3 하천 쪽에 접한 까치밭 건물들

마을 끝의 시장 자리는 몇 년 전 깔끔하게 개발돼 '쇠바우골탄 광문화장터'로 거듭났다. 탄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먹거리를 파는 음식점과 다방 등이 들어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당시 가장 변화했던 상가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한 철암탄광역사촌은 '까치밭 건물'로 유명하다. '까치밭'은 하천 쪽에 접한 건물 바닥을 목재 또는 철재로 만든 지지대를 뜻한다. 건물 내부에는 당시 광산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건물 한쪽은 파독광부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다. 연탄과 관련된 안도현의 시가 떠올랐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시다. 철암은 우리에게 참으로 뜨거운 곳이었다. ▼

INFORMATION



몽토랑 목장 입장료는 5천원이다. 5천원을 더 내면, 산양 먹이를 살 수 있다. 탄탄파크와 오로라파크 통합 이용권 가격은 9천원이다. 동굴 2곳을 연결하는 카트가 운영되지 않으면 8천원에 판매되기도 한다. 통리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도 있어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철암역의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다. 장터 안에는 연탄재 모양의 '탄광마을빵'을 맛볼 수 있는 역전다방, 태백의 명물 물닭갈비집, 철암천 옆에서 연탄에 직접 쇠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육식당도 있다.

